日, 8백년 전설 속 차밭, 사찰서 재개 시도

코쇼지 부지 뒷산 차나무서
고유 재래종 유전자 발견돼
7명원중 한곳으로 잠정결론
향후 결정적 문헌 발견 기대

박정현 객원기자


코쇼지에서 발견된 차나무들. 사진출처=닛폰닷컴

13세기 선승들에 의해 시작된 일본의 차(茶) 역사. 이중 교토 남부에 위치한 도시 우지(宇治)의 차는 그 시작과 함께해온 차의 도시다. 14세기 일본의 최고 권력자였던 아시카가 요시미츠는 우지에서 7곳의 차밭을 엄선해 '7명원(茗園)' 이라는 이름을 붙여 최고의 차라고 평가했지만 현존하는 차밭은 단 한 곳. 그러던 중 우지의 고찰 코쇼지(興聖寺)에서 7명원 중 한 곳으로 추정되는 밭이 발견돼 화제다. 지난 2월 2일, 일본의 '닛폰닷컴' 은 부활하는 전설의 차밭에 대해 보도했다.

7명원 중 한 곳인 아사히엔(朝日園)의 흔적으로 추정되고 있는 곳은 우지의 고찰, 코쇼지 부지의 뒷산이다. 코쇼지는 13세기 일본 조동종의 종조인 도겐(道元) 선사가 최초로 세운 선원으로 쇠락하다 17세기 중반 당시 우지산 기슭에 있던 차밭 안에 사찰을 중창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쇼지의 산에서 차나무를 발견한 차 연구가 마츠바야시 토시유키는 "단풍으로 유명한 참배로를 탐방하던 중 돌담 근처에서 오래된 차나무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아사히엔의 흔적이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전했다. 코쇼지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소자키 엔다이 스님 역시 "코쇼지에서 근무한지 11년이 넘었고, 차밭에 절을 중창했다는 알고 있었지만 차밭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 줄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마츠바야시와 코쇼지 측은 차밭의 역사에 대해서 조사하던 중 사찰에 남은 차밭이 아시카가의 7명원 중 아사히엔의 흔적인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코쇼지 측은 "사찰의 뒷산은 우지산이라고 불리지만, 이전에는 아사히산이라고 불렸으며 사찰에 남은 옛 기록화도 산 뒤로 차밭이 펼쳐져 모습이 묘사돼 있다"고 전했다.

또 "사찰에 남은 차나무들의 품종을 교토대학의 농림센터에 문의한 결과 코쇼지의 차나무들은 현재 일반적인 차밭에서 보이는 개량품종이 아닌 교토 고유의 재래종에 가깝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사찰의 차밭이 역사적으로나 유전자원적으로 귀중한 장소임이 밝혀졌다.

다이엔 스님은 "사찰에 남은 기록에 따르면 중창당시 경내엔 7개의 다실이 있었고, 중창전에는 차를 만드는 제다실이 있었다고 한다. 향후 이곳이 아사히엔의 자리라고 밝히는 문헌이 더 발견되면, 이 땅이 7명원의 하나라는 역사적인 장소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현재 코쇼지측은 삽목법을 이용하여 사찰의 오래된 차나무에서 종자를 늘리고 있으며, 이후 차밭을 정비하여 늘릴 계획이다. 코쇼지 측은 "늘린 차밭은 사찰의 새로운 명소이자, 역사적인 명물로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밭은 최초로 재발견한 마츠바야시는 코쇼지의 찻잎을 이용해 샘플식으로 오룡차를 제다, 현지의 오래된 찻집들을 중심으로 시음회를 열고 있다. 차를 맛본 한 차인은 "과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명차의 맛이다. 차 전체에서 단맛이 돌면서 일반적인 우지의 차와는 또 다른 맛"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제다업 관계자는 "그동안 소실 직전으로 알려졌던 재래종 차나무가 밭의 형태로 사찰에서 발견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 불가와 차의 불가분의 관계가 새롭게 보인다"며 감격스럽다는 감정을 내비쳤다.

中, 설 행사서 불교기 게양한 티베트인 처벌

자택 구금 및 벌금 929만 원 부과


로사르 행사에 게양된 불교기.

중국이 티베트 설 명절인 '로사르' (Losar) 때 중국 국기 대신 불교기를 게양한 대학생을 처벌했다.

지난 2월 7일 티베트 인권 민주주의 센터(TCHRD)는 "중국 당국이 로사르 행사에서 불교기를 게양한 티베트 대학생 게펠(Gephel) 등을 자택에 구금하고 5만 위안(한화 약 92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사상 교육에 참여하라고도 명령했다.

행사를 주최한 게펠은 앞서 중국 국기를 의무적으로 게양하고 행사를 중국어로 진행하라는 경찰의 조건을 거부했다. 대신 불교기를 게양하고 티베트어와 문자만을 사용했다. 공연도 티베트 전통 음악이나 안무로만 꾸려졌다.

게펠은 경찰 조사에서 "불교기는 평화, 연민, 지혜라는 보편적 가치를 상징할 뿐 정치나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TCHRD는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조치를 강력 규탄했다. TCHRD는 "중국 당국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한다"며 "대중 집회에서 불교기 게양을 금지한 것은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침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시민과 정치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 제1항은 종교 ·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는 내용의 유엔선언 제1조 1항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개인과 단체는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모든 행사에서 중국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국내법과 국제 인권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며 "티베트인이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피력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호주 멜버른 불교 사찰 화재로 전소

소방당국, 2시간 30분만에 진압


멜버른에 위치한 전소된 사찰. 사진=AAP

호주 멜버른의 한 불교 사찰이 화재로 인해 전소됐다.

지난 2월 5일(현지시간) 더가디언(The guardian) 등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멜버른 남동쪽에 위치한 브라이트문 부디스트 소사이어티 사찰(Bright Moon Buddhist Society Temple)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더가디언에 따르면 화재 규모는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도 목격될 만큼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지역 소방 당국은 "근래 최대 수준의 화재"라며 "높이 5층 규모의 사원이 전소됐다"고 설명했다.

화재가 발생한 오후 8시께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됐고, 지역 소방당국은 즉각 100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소방인력을 투입했지만 전소를 막을 수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최초 발생 2시간 30분 후인 오후 10시30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지역 주민 약 30명은 긴급 대피했다. 사찰 관계자, 시민, 소방인력 중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약 600명의 유골을 안치했던 법당은 화재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아 신도들이 안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사찰에 부친의 유골을 모신 한 베트남인 신도는 "아버지는 멜버른으로 오신 후 사찰에 오실 때마다 큰 힘을 받으셨다"며 "아버지 유골이 훼손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달음에 달려왔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어 "그래도 충격적인 사건임은 분명하다"라며 "지역민들은 하나의 성역(聖域)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찰은 불교도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 공간으로써 큰 의미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1980년 지역 불자들이 불자회를 조직하고 한 차고에서 법회를 갖다 불사의 뜻을 모았다. 이후 매년 수 천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할 만큼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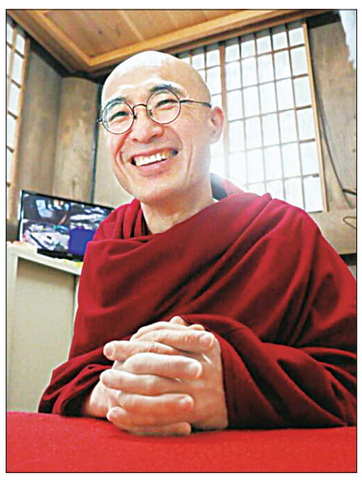
사찰 관계자는 "이곳은 부처님을 모시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만남의 장소였다"며 "오랜 시간 지역민과 함께 했기 때문에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라고 안타까워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 파악에 착수했지만, 방화를 의심할 만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정현 객원기자

일본인 최초 '켄뽀', 도쿄 티베트 불교센터 개원

13년간 강원 마친 오쿠나 스님
대중 함께하는 공간 되길 발원


일본인 최초로 '켄뽀' 학위를 취득한 오쿠다 스님. 사진출처=고베신문

전통 강원의 수학체계가 길고 어렵기로 유명한 티베트 불교, 이중 13년간의 전통 강원 과정을 마친 최초의 일본인 스님이 도쿄에 티베트 불교 센터를 개원해 화제다. 2월 1일 일본의 '고베신문' 은 일본인 최초 '켄뽀' 인 오쿠나 츠요시 스님에 대해 보도했다.

티베트 불교는 전통적으로 삼장에 대한 교학과 밀교에 대한 수행을 어느 과정까지 마쳐야만 포교 일선에 나설 수 있다. 티베트 불교의 4대 종단 모두가 최소 5년에서 최고 20년에 가까운 전통 강원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중 사캬파의 전통강원에서 13년간의 교과과정을 마친 오쿠다 스님은 일본인 최초의 '켄뽀' 학위를 취득했다. 켄뽀란 티베트 불교에서 박사에 해당하는 학위 중 하나며, 사원의 방장 혹은 주지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오쿠나 스님은 30여 년 전 근무하던 출판사를 그만두고 세계배낭여행을 시작했다. 이중 티베트와 네팔을 여행하던 중 불교에 흥미를 가졌고, 네팔에 있는 티베트어 학교에서 티베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스님은 "네팔에서 공부하던 중 남인도의 종사르 사원에서 온 티베트 스님의 초청으로 남인도를 방문한 것이 출가의 계기였다"고 회상했다. 스님은 그곳에서 "티베트 불교엔 일본에 전해지지 않은 불교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 본격적인 불교 공부를 시작, 남인도 유학 4년째에 출가했다.

스님은 이후 2곳의 사원에서 9년간의 현교과정과 4년간의 현교과정을 마쳤다. 스님은 "출가한 이상 정진하며 나아가자는 마음이 켄뽀학위까지 취득하게 됐다"면서 "켄뽀가 된 그해 일본으로 돌아온후 어떻게 나의 공부를 회향하면 좋을지 고민했다"고 전했다. 이후 스님은 티베트 불전 강독이나 불교 특강과 같은 활동을 이어 나갔다. 마침 지역사찰에서 주지를 지내는 일본인 도반 소개로 관음성지로 유명한 고찰 엔교지(圓教寺)에서 8년간 머무르게 됐다. 스님은 당시 엔교지에서 유명인사였다. 스님의 가르침을 듣거나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왔다.

지난해 티베트 은사스님으로부터 "이제 자신의 말로 불교를 가르치기 시작하라"는 권유와 함께 '체첸 텐펠링(大悲弘法寺)' 이라는 사찰명을 받았다. 도쿄에 새롭게 공간을 마련한 오쿠다 스님은 "8년간 엔교지에서 근무하면서 현재 불교가 대중들과 떨어져 격리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불교가 대중들과 함께해야 함을 지적했다. 스님은 "티베트 불교의 가장 기초에는 일체중생에 대한 자비를 먼저 가르친다. 자비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모두에게 전하는 불교를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3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안내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월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2학년	각 배	각배(시왕재)	수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3학년	실 기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불공, 시식	목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3년 1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3년 3월 첫째주 월요일(3월 6일)
※개강 이후 3월 중 입학신청 가능
■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장 김 태 호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